

같이 보기

: 이한열 마을문화제

광주 '1987 이한열 마을문화제' 가져

글 정현석 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전남북지역본부 사내기자





광주 광산구 신창동은 6.10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이한열 열사를 기리기 위해 2020년부터 '1987 이한열 마을문화제'를 개최해왔다. 올해에는 광주 시와 광주시교육청, 광산구, 광주 진흥고가 공동 주최하고, 신창마을교육발전소와 신창동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6월 11일, 신창동 역사문화공원에서 개최됐다. 행사를 추진한 하명수 신창마을교육발전소 회장은 “청소년들이 이한열 열사의 뜻을 기억하고, 계승할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며 마을문화제가 살아있는 역사 배움터가 되고 있음을 실감했다”며 “앞으로도 이 행사가 지속돼 민주 시민 성장을 돕는 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는 '그대가 꿈꾸던 내일, 오늘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추모식부터 문화공연, 체험 행사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많은 참여로 더욱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그중에서도 1985년 광주진흥고등학교 11회 졸업생인 이한열 열사를 기리기 위해 광주진흥고등학교 학생회와 미술부, 만화부 및 전체 학생 일

동은 이한열 열사에 대해 공부하며 다채로운 활동 모습을 보여주었다.

평범한 주부였던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는 아들의 죽음 이후 평생을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며 아들이 못다 이룬 꿈을 위해 민주화 운동에 헌신해왔다. 배은심 여사는 민주화와 인권 운동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6월 '6.10 민주항쟁 33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故이소선 여사 등과 함께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또한, 이한열 열사 31번째 추모제에서 “민주주의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범벅되어 한 발짝씩 온다”며 “(열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 믿는다”는 추모사를 남기기도 했다.

6.10 민주항쟁이 1987년으로부터 어느새 35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그 시절 그들의 꿈과 열정, 선의는 현재의 민주주의를 만들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민주화 운동의 극점이었던 1980년대의 정신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겠다. 🍀